

# 대학생의 알코올 사용장애, 가족응집력, 자아존중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 영 미

강원대학교 삼척 제2캠퍼스 간호학과

## Influences of Alcoholic Use Disorder, Family Cohesion and Self-esteem on Mental Health among University Students

Young Mee Lee

Department of Nursing, Samcheok Second Campu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Alcoholic Use Disorder, Family cohesion and Self-esteem on Mental health among University Student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from 468 students and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WIN 19.0 program.

**Results:** As defined by alcoholic use disorder, the proportion of dependent group was 3.6%, disorder group was 16.9%, and genral group was 79.5%. The levels of alcoholic use disorder depended on gender and residence type. The levels of mental health depended on gender, family income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mental health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family cohesion and self-esteem. The influential factors affecting mental health were self-esteem, academic achievement, gender, which explained about 44.8% of the variance.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nursing intervention are needed to improve mental health and alcohol use disorder and that such variables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in intervention for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Alcoholic Use Disorder, Family cohesion, Self-esteem, Mental health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발달단계상 성인초기에 해당되며, 건강하고 성공적인 성인기를 위해 사회적 역할을 준비하는 시기에 있다. 대학생활에 대한 성공적인 적응은 미래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용이하게 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예측하는 중

요한 요인으로서 이것은 정신건강수준으로 나타낼 수 있다 (Kim, 2010). 대학생은 이전과 다른 대학생활의 적응, 전공수업, 자신에 대한 이해, 경제적 부담, 사회적 가치관의 수용문제, 직업준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 등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에(De et al., 2008), 알코올·약물남용, 은둔형 외톨이 생활, 게임 중독, 썩어부러짐, 자살, 개인화 등의 다양한 정신적·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Kee, 2008).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Corresponding author:** Young Mee Lee, Department of Nurs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amcheok Second Campus, Hwangjo-ri Dogye-eup Samcheok 245-907, Korea. Tel: 82-33-540-3361, Fax: 82-33-540-3369, E-mail: ymlee@kangwon.ac.kr

투고일 2011년 12월 5일 / 심사완료일 2011년 12월 20일 /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23일

실태는 전체 37.5%의 학생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신건강 수준이 더 낮게 보고된다(Lee, 2000).

또한 대학생활은 사회적으로 음주가 용인되는 시점으로, 입시준비로 겪었던 스트레스와 구속 없는 자유를 느끼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선배들의 권유와 MT, 신입생 환영회, 동아리모임 등의 행사에서 자의나 타의로 더 많은 음주를 경험하게 된다(Lee & Kim, 2009).

2006년 한국대학생 알코올문제예방협회가 전국 12개 대학 3,329명의 대학생을 상대로 조사한 음주 관련 조사에서 지난 2000년 보다 월 평균 음주량은 32.7잔에서 48.5잔으로 증가하였고, 대학생 다섯 중의 한명 꼴인 20.1%가 알코올 남용자인 것으로 보고되었다(Yoon, 2007).

과음하는 학생은 비음주자에 비해 친구와의 다툼, 사고, 경제적 손실, 결석, 예기치 못한 성행위, 자살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25배나 높다고 보고되며(Wecsher et al., 1994), 불면, 공포감, 환시 등의 알코올과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Choi, 1998), 알코올 의존군과 알코올 사용장애군이 일반군보다 정신건강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다(Lee, 2003).

이처럼 대학생의 음주문제는 신체적, 사회경제적 및 정신적 건강문제까지 초래하므로(Lee et al., 1999), 대학생의 정신건강의 향상을 위해 알코올의 장애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변인인데(Kim & Park, 2010), 자아존중감은 개인 자신이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대인관계를 원만히 유지시키고 건전한 성격발달과 정신건강에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과 생활의 적응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필수 요건이다(Jo, 2008). 그러나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감정폭발이 잘 되고, 상대의 거절과 부정적 반응에 쉽게 적대적이 되어 공격적으로 되며(Hyun, 2008), 내적으로 긴장되고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Lewis et al., 2000).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알코올 의존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Park, 2008).

또한 대학생의 정신건강은 자신이 태어나 성장한 원가족(family-of-origin)의 영향을 받으며, 그 영향은 평생을 통해 지속되기도 하여(Chung, 2008), 가족 구성원의 비판적인 태도는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Barrowclough et al., 2003). 가족의 정서적 유대감이

가족의 응집정도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정신건강상태는 양호하다고 보고된다(Ahn, 1998). 그러므로 정신건강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알코올 사용장애, 가족의 응집력과 자아존중감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관련 연구로 알코올 사용장애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있었으나, 가족응집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알코올 사용장애, 자아존중감 및 가족응집력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알코올 사용장애, 가족응집력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대학생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알코올 사용장애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학생의 정신건강, 알코올성 사용장애, 가족응집력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정신건강, 알코올 사용장애, 가족응집력 및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정신건강 관련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강원도 소재 3개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자의 설명과 안내에 자발적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대학생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동의를 서명한 학생이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

프로그램으로 계산하였을 때 회귀분석에 필요한 중간정도의 효과 크기인 .15, 유의수준 .05, 통계적 검정력 .80, 그리고 독립변수 5개를 투입하여 산출한 결과 최소 92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468명의 대상자로 하였기에 표본의 크기는 충분하다.

###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알코올성 사용장애 선별검사, 일반정신건강척도, 가족응집력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 1) 알코올성 사용장애 선별검사(Alcohol Use Disorders Screening Test, AUDIT)

알코올 사용장애는 알코올성 장애 선별검사로 측정하였는데, 이 도구는 WHO에서 개발한 10문항의 설문지 (Saunders et al., 1993)로 음주의 양, 빈도 등을 첨가하여 의학적 의미의 과음과 폭음을 측정할 수 있는 점이 선행의 도구들과의 차이점이다. 10문항 중 음주의 양과 횟수에 관한 3문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에서는 12점 이상을 광범위한 의미의 '문제음주'로, 15점 이상을 '알코올 사용 장애'로, 26점 이상을 '알코올 의존'으로 의심하여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8$ 이었다.

#### 2) 일반정신건강척도(The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KGHQ)

정신건강은 일반정신건강척도로 측정하였는데, 이 도구는 비 정신의료전문가를 위한 정신건강척도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General Health Questionnaire의 한국판으로 표준화하여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정신건강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Shin (2001)이 번안 한 것을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정신증상으로 4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20항목으로, '매우 그렇다' 1점에서 '매우 아니다' 4점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로, 불안요인 5문항, 우울요인 5문항, 사회적 부적응 9문항, 외출빈도 1문항으로 되었다. 각 정신증상 차원의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의 정도가 나쁜 것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정신건강이 양호함을 의미한다. Shin (200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70이었다.

#### 3) 가족응집력 척도

가족응집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Choi와 Hong (1997)이 가정환경진단 검사 중 가족응집력에 관한 5문항을 선정하여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로 점수범위는 1~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심리적 관계가 좋은 것이다. Choi와 Hong (199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19이었다.

#### 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의 척도는 Rosenberg (1965)가 개발한 척도를 Jeon (1974)가 번안한 것을 이용하였으며,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Jeon (197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63이었다.

###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10월 1일부터 10월 11일 까지이었고, 본 연구자가 연구보조원 1명에게 연구목적과 자료수집방법에 대해 훈련을 하였으며, 연구보조원이 대학생에게 연구의 목적과 진행을 설명하고 본 자료들이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설문지 작성에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어떤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은 서면 동의서와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500부를 배부하였으나, 자료가 불충분한 32부를 제외하고 468부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또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는 t-test, ANOVA,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 대학생의 정신건강, 알코올 사용장애, 가족응집력, 자아존중감과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남학생이 32.3%이고, 여학생이 67.7%이었고, 부모가 생존해 있는 학생이 88.7%이었고, 가족의 월수입이 200~300만원 이하가 35.3%이었고, 기숙사생활이 74.1%이었으며, 학교성적이 보통인 경우가 6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알코올 사용장애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알코올 사용장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성별, 거주형태이었다. 성별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알코올 사용장애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chi^2=35.132, p<.001$ ), 거주형태에서도 집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알코올 사용장애를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chi^2=18.699, p=.001$ ) (Table 1).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성별( $t=-2.306, p=.022$ ), 가족수입( $F=4.180, p=.006$ ), 성적( $F=10.697, p<.001$ )이었는데, 성별에서는 남학생의 정신건강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Scheffe 사후 검정결과는 가족수입에서 200만원 이하의 수입인 학생이 300~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의 수입보다 정신건강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성적에 따라서는 성적이 하위인 학생이 중, 상보다 정신건강 점수가 높았으며, 성적이 하위일수록 정신건강 점수는 높게 나타났다. 즉 여학생으로, 가족의 수입이 적을수록,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정신건강은 좋지 않게 나타났다 (Table 2).

### 4. 대상자의 정신건강, 알코올 사용장애, 가족응집력 및 자아존중감의 수준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정신건강점수는 45.2점이었고, 가족응집력은 18.5점, 자아존중감은 34.20점, 알코올성 장애별 분류로는 알코올 의존군은 17명(3.6%), 알코올 사용장애군은 79명(16.9%), 일반군은 372명(79.5%)로 나타났다 (Table 3).

<Table 1> Differences of Alcoholic Use Disorder to General Characteristics

(N=468)

Characteristics	Categories	Dependent group	Disorder group	General group	$\chi^2$	p
		n (%)	n (%)	n (%)		
Gender	Male	11 (7.3)	44 (29.1)	96 (63.6)	35.132	<.001
	Female	6 (1.9)	35 (11.0)	276 (87.1)		
With parents	Both	15 (3.6)	71 (17.1)	329 (79.3)	2.281	.892
	Father only	0 (0.0)	2 (15.4)	11 (84.6)		
	Mother only	2 (5.7)	6 (17.1)	27 (77.1)		
	None	0 (0.0)	0 (0.0)	5 (100.0)		
Family income (10,000 won)	< 200	4 (5.5)	12 (16.4)	57 (78.1)	7.441	.282
	200~< 300	7 (4.2)	30 (18.2)	128 (77.6)		
	300~< 400	0 (0.0)	18 (14.9)	103 (85.1)		
	≥ 400	6 (5.5)	19 (17.4)	84 (77.1)		
Residence type	My house	6 (8.5)	16 (22.5)	49 (69.0)	18.699	.001
	Studio apartment	1 (2.0)	16 (32.0)	33 (66.0)		
	Dormitory	10 (2.9)	47 (13.5)	290 (83.6)		
Academic achievement	Good	4 (6.3)	9 (14.1)	51 (79.7)	7.577	.108
	Moderate	9 (2.8)	50 (15.4)	266 (81.8)		
	Poor	4 (5.1)	20 (25.3)	55 (69.6)		

<Table 2> Differences of Mental Health to General Characteristics

(N=46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ntal health		p
			M±SD	t or F	
Gender	Male	151 (32.3)	2.20±0.40	-2.306	.022
	Female	315 (67.7)	2.29±.38		
With parents	Both	414 (88.7)	2.25±0.39	0.260	.854
	Father only	12 (2.8)	2.25±0.35		
	Mother only	35 (7.5)	2.30±0.42		
	None	5 (1.1)	2.15±0.26		
Family income (10,000 won)	< 200 <sup>a</sup>	72 (15.6)	2.39±0.39	4.180	.006 a > c, d <sup>1)</sup>
	200~< 300 <sup>b</sup>	165 (35.3)	2.27±0.39		
	300~< 400 <sup>c</sup>	121 (25.9)	2.22±0.36		
	≥ 400 <sup>d</sup>	108 (23.3)	2.20±0.40		
Residence type	My house	71 (15.2)	2.28±0.35	0.160	.852
	Studio apartment	49 (10.7)	2.25±0.37		
	Dormitory	346 (74.1)	2.25±0.40		
Academic achievement	Good <sup>a</sup>	63 (13.7)	2.11±0.35	10.697	< .001 a < b < c <sup>1)</sup>
	Moderate <sup>b</sup>	324 (69.4)	2.25±0.37		
	Poor <sup>c</sup>	79 (16.9)	2.40±0.41		
Alcoholic use disorder	Dependent group	17 (3.6)	2.25±0.44	2.599	.078
	Disorder group	79 (16.9)	2.35±0.37		
	General group	372 (79.5)	2.24±0.38		

<sup>1)</sup>Scheffe' test.

<Table 3> Levels of Mental health, Alcoholic Use Disorder, Family cohesion and Self-esteem (N=468)

Variables	Range	n (%) or M±SD
Mental health	1~4	45.2±7.8
Family cohesion	1~5	18.5±3.2
Self-esteem	1~5	34.2±6.1
Alcoholic use disorder	1~5	9.6±0.6
Dependent group	≥ 26	17 (3.6)
Disorder group	15~25	79 (16.9)
General group	≤ 14	372 (79.5)

용장애( $r=.072, p=.121$ )와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정신건강이 좋을수록 가족응집력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Mental Health, Alcoholic use Disorder, Family Cohesion and Self-esteem (N=468)

Variables	Alcoholic use disorder	Family cohesion	Self-esteem
	r (p)	r (p)	r (p)
Mental health	.072 (.121)	-.236 (< .001)	-.663 (< .001)

5. 대상자의 정신건강, 알코올 사용장애, 가족응집력 및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대상자의 정신건강, 알코올 사용장애, 가족응집력,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정신건강은 가족응집력( $r=-.236, p<.001$ ), 자아존중감( $r=-.663, p<.001$ )과는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알코올 사

5. 대상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요인

본 연구대상자의 정신건강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입력방식의 회귀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라 정신건강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성별, 가족수입, 성적과 정신건강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가족응집력, 자아존중감을 회귀식에 포함 시켰다.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

하기 전에 독립변수들의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차한계(Tolerance Limit)와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분석한 결과는 공차한계의 경우는 그 값이 0.87~0.93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는 1.06~1.14으로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Durbin-Watson값을 구했는데 그 결과는 1.99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65.128$ ,  $p<.001$ ). 대상자의 정신건강에 영향변수로는 자아존중감( $\beta=-.626$ ,  $p<.001$ ), 성별( $\beta=.108$ ,  $p=.003$ ), 성적( $\beta=.075$ ,  $p=.034$ )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은 정신건강에 대해 45.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 고찰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알코올 사용장애, 가족응집력 및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학생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사용장애에서 알코올 의존군은 17명(3.6%), 알코올 사용장애군은 79명(16.9%), 일반군은 372명(79.5%)로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 Lee (2003)의 연구에서 알코올 의존군이 11.0%, 알코올 사용장애군은 25.4%, 일반군은 63.6%의 비율보다는 낮게 나타났고, 알코올 의존군과 알코올 사용장애군을 합친 알코올사용의 장애를 나타내는 비율도 본 연구에서 20.5%로, Lee (2003)의 연구에서 36.4%로 나타나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알코올 사용장애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 알코올 사용에 대한 문제가 호전되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본

연구에서의 대상자들 중 남학생의 비율이 32.3%로, Lee (2003)의 51.2%보다도 낮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생각된다. 대학생들이 일반 성인보다 알코올 사용장애 정도가 높아 대학 내의 술 문화는 심각하며(Lee, 2003), 많은 수의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도 문제성음주자로 남기 때문에(Ham & Hope, 2003), 대학사회의 바람직한 술 문화의 정착을 위해 학교와 사회의 많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알코올 사용장애의 차이를 보면, 성별과 주거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성별로 남학생이 알코올 의존군은 11명(7.3%), 알코올 사용장애군은 44명(29.1%), 일반군은 96명(63.6%)로 나타나, 여학생의 알코올 의존군 6명(1.9%), 알코올 사용장애군 35명(11.0%), 일반군 276명(87.1%)으로 나타난 것 보다 알코올 사용장애군이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는데, 이는 Lee (2003)와 Park (2008)의 연구에서도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알코올 사용장애가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었다. 그런데, 여학생도 알코올 의존군과 알코올 사용장애군을 합친 비율이 12.9%로 나타났는데, 이런 비율은 대학시절의 음주습관은 음주가 학습되어(Abrahams & Niaura, 1987), 학생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Lee & Kim, 2009), 여학생들의 음주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인 것이다. 또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신체의 수분량이 적고 알코올 대사능력이 떨어지는 등의 생물학적 특성으로 인해 알코올에 취약하고(Kim, 2006), 유방암의 발생위험이 높고, 지속적인 과음은 불임, 유산, 태아 알코올 증후군 등의 생식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Van der Walde et al., 2002), 남학생보다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겠다.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집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서 알코올 의존군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Lee (2003)의 연구에

**Table 5.** Variables influencing Mental Health

(N=468)

Variables	B	SE	$\beta$	t	p	
(Constant)	3.495	0.138		25.411	< .001	Durbin-Watson 1.991
Self-esteem	-.395	0.023	-.626	-17.050	< .001	
Gender	.091	.030	.108	3.007	.003	
Academic achievement	.053	.025	.075	2.121	.034	
Family cohesion	-.032	.022	-.054	-1.476	.141	
Family income	-.001	.014	-.002	-.055	.956	
$R^2=.460$ , Adj. $R^2=.456$ ( $F=65.128$ , $p<.001$ )						

서도 집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서 알코올 장애의 비율이 높았던 것과 같은 결과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74.1%의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숙사내의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학생들의 알코올 장애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기숙사 내의 엄격한 관리가 학생들의 알코올 장애 예방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으로, 가족의 수입이 적을수록,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정신건강은 좋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여학생이고 경제적으로 빈곤할수록, 성적이 나쁠수록 정신건강은 부정적인 양상을 보여 대부분의 정신건강 문제가 저소득층에서 더 취약하다는 연구결과(Bae, 2006)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im (2001)의 연구에서도 정신건강은 학업성취 결과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Lee (2011)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의 정신건강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부모의 학력과 경제수준이 친밀한 관련을 나타내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화목하지 못한 환경과 더불어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학교와 가족 모두가 함께 관심과 사랑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정신건강, 알코올 사용장애, 가족응집력, 자아존중감과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정신건강은 가족응집력과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역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즉 정신건강이 좋을수록 가족응집력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정신건강이 좋을수록 가족응집력이 높게 나타난 것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족응집력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연구에서, 가족 응집력과 정신건강점수는 상관계수가 있었다는 연구결과(Chung & Na, 1991)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응집력과 정신건강이 상관계수가 있다는 연구결과(Ahn, 1988)와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과 부모는 인간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있어 최초 환경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Canetti et al, 1997)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대학생의 바람직한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과 결속도를 나타내는 가족 응집력 강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신건강이 좋을수록 자아존중감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정신

건강 점수가 높다는 연구(Lee, 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고, 또한 Cho와 Seo (2010)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정신건강을 유지시키거나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개인의 자아존중감 증진이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의 정신건강에 영향변수로는 자아존중감, 성별, 성적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은 정신건강에 대해 45.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나타낸 Cho와 Seo (2010)의 연구와 Lee (2011)의 연구 일치한 결과로 정신건강은 자아존중감과 친밀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대학생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아존중감이 낮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성별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성별이 확인된 연구(Bae, 2006)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었으며, 또한 성적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아동의 학업성취도가 정신건강에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연구(Cho & Seo, 2010)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대학생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자아존중감, 성별, 성적을 고려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대학생의 알코올 사용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성적이 저조한 저소득 계층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자아존중감 강화를 위한 대안이 요구된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 468명을 대상으로 알코올 사용장애, 가족응집력,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학생들은 알코올 의존군은 17명(3.6%), 알코올 사용장애군은 79명(16.9%), 일반군은 372명(79.5%)로 나타났으며, 알코올 의존군의 비율은 높지 않았으나, 의존군과 사용장애군의 비율이 20.5%로 나타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으로, 가족의 수입이 적을수록,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정

신건강은 좋지 않게 나타났으므로, 이들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정신건강, 알코올 사용장애, 가족응집력, 자아존중감과 상관관계에서는, 정신건강이 좋을수록 가족응집력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에 영향 변수로는 자아존중감, 성별, 성적으로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초기성인기에 지나칠 수 있는 정신건강 수준을 알아보고, 정신건강 관련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성별, 성적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대학생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이런 변수들을 포함하는 중재개발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변수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중재 전·후의 비교 연구를 제언한다.

## 참고문헌

- Abrahams, D. B., & Niaura, R. S. (1987). *Social learning theory in: theories of drinking and alcoholism*. New York: Guilford Press.
- Ahn, Y. H. (1988).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adaptability and family cohesion and male adolescents' mental healt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Bae, J. Y. (2006). The study on mental health on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5(3), 308-317.
- Barrowclough, C., Tarrrier, N., Humphreys, L., Ward, J., Gregg, L., & Andrews, B. (2003). Self-esteem in schizophrenia: Relationships between self-evaluation, family attitudes, and symptomatology. *Journal of Abnormality Psychology*, 112(1), 92-99.
- Canetti, L., Bachar, E., Galili-Weisstub, E., De-Nour, A. K., & Shalev, A. V. (1997). Parental bonding and mental health in adolescence. *Adolescence*, 32, 381-394.
- Chung, H. J. (2008). Relationships of family-of-origin functioning with self-differenti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17(6), 1135-1149.
- Chung, Y., & Na, D. M. (1991). An analysis of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cohesion, family adaptability and female students' mental health. *The Medical Journal of Chosun University*, 16(2), 347-361.
- Cho, E. S., & Seo, J. M. (2010). Factors influencing children's mental health state.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9(1), 57-66.
- Choi, H. S. (1998). *Alcohol drinking of college society*. Korea Alcohol & Liquor Industry Association.
- Choi, T. S., & Hong, K. J. (1997). An analysis of psychological variance of problem behavior among adolescences.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11(2), 291-322.
- De, J. C., Oh, K. O., & Kim, T. S. (2008). A comparative study on the stress, coping method, and mental health of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in Korea and China.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7(1), 75-84.
- Ham, L. S., & Hope, D. A. (2003). College student and problematic drinking, A review of literatur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3, 719-759.
- Hyun, M. Y. (2008). The effect of a group therapy for the offenders of family viol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8(3), 420-427.
- Jeo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Medical Journal*, 11, 107-129.
- Jo, G. S. (2008). *Effect of music therapy on depression, self-esteem and stress of institutionalized elderly-focusing on s-nursing home in Daebudo*. Unpublished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Incheon.
- Kee, C. Y. (2008). The relationship of college students' self-soothing, self-encouragement, self-acceptance and mental health.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1(4), 65-76.
- Kim, H. S., & Park, K. R. (2010). Effects of an interpersonal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 using MBTI: Effects on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 and mental health in company employee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Health Nursing*, 19(3), 261-270.
- Kim, S. J. (2006). Drinking experiences of woman alcoholics: A feminist approach.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5(4), 362-374.
- Kim, S. O. (2010). *A study of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self-differentiation, self-esteem and mental health: Focused on depression and anxi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Busan.
- Lee, H. S. (2011). Relation on the self differentiation, self-esteem and mental health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 (2), 199-207.
- Lee, C. H., & Kim, M. S.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drinking behavior and alcoholism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10(1), 55-64.
- Lee, M. H., Lee, Y. J., & Jeong, H. S. (1999). Alcoholic disorder and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8(1), 97-107.
- Lee, H. J. (2000). The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career-undecided undergraduates and their mental health.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14(1), 113-140.



- Lee, C. H., & Kim, M. S.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Drinking Behavior and Alcoholism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10(1), 55-64.
- Lee, J. S. (2003). *A study ofn the alcoholic disorder and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Gongju.
- Lewis, B. A., & O'Neill, K. H. (2000). Alcohol expectancies and social deficits relating problem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Addictive Behaviors*, 25(2), 295-299.
- Lim, K. H. (2001). Analytic study on student's mental health. *Journal of Research Education*, 14, 1-23.
- Park, S. H. (2008). *Factors Influencing Problem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unders, J. B., Aasland, O. G., Babor, T. F., de la Fuente, J. R., Grant, M. (1993). Development of the Alcohol Disorders Screening Test (AUDIT): WHO collaborative project on early detection of persons with harmful alcohol consumption II. *Addiction*, 88, 791-804.
- Shin, S. I. (2001).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46, 210-235.
- Van der Walde, H., Urgenson, F. T., Weltz, S. H., & Hanna, F. J. (2002). Woman and alcoholism: A biopsychosocial perspective and treatment approaches. *Journal of Counselling & Development*, 80, 145-153.
- Wecsher, H., A., Davenport, G., Dowdall, B., Moeykens, & Castillo, S. (1994). Health and behavioral consequences of binge drinking in colleg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2, 1672-1677.
- Yoon, J. A. (2007). *One of five college students is alcohol abuser*. February 3, 2010, from the NEWSIS Web site: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LSD &mid=sec&sid1=102&oid=003&aid=0000617167>